



레이저치의학회 · 장애인치과학회 치협 인준학회로 최종 승인

대한레이저치의학회와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치협 인준학회로 최종 승인됐다.

하지만 대한소아치과학회의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변경하는 안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치협은 3월 18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월 27일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장기택)에서 학회 인준·심의를 통과한 대한레이저치의학회와 대한장애인치과학회를 분과학회로 최종 인준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치과학회의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치과학회로 변경하는 안은 현재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추후 전문의 명칭과도 관계가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총회 당일 각종 수상자 선정에 대한 최종 인준 및 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안이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13일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김봉환 대구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확정 인준했으며, 부산치과의사 '남

성양상블'을 치과의료문화상, 부산지부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치과의료봉사단체인 'BFDA'를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3월 5일 협회대상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제34회 협회대상 학술상 및 제27회 신인학술상 수상자인 한수부 서울치대 치주과 교수와 민경산 원광치대 보존과 교수를 최종 수상자로 인준했다.

또 총회 상정안건 및 정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섭외위원회를 대외협력위원회로 개정하는 안 ▲군무위원회의 명칭 및 업무를 개정하는 안 ▲치협 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환자가 치료받던 중 치과의사가 폐업해 없어지는 경우 치협 대책과 치과용 물방울 레이저의 무통, 무마취, 무통증 등을 강조하는 과대광고에 대한 치협 입장, 치과미용술식 세미나 불법현장판매 등에 대한 치협 입장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면답변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노홍섭(경남), 김성옥(서울) 지부담당 부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도치의제 발전적 논의 치협 · 치기협 TF팀 회의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는 3월 6일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한 양 단체 TF팀 회의를 갖고 지도치의제를 포함한 양 단체 관련 현안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서로간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김동기 부회장을 비롯, 주동현 섭외이사, 손정열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송준관 회장, 박재만 부회장, 주희중 총무이사, 최인규 전 섭외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양 단체는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의 권익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서로 당부했다.

김동기 부회장은 "양 단체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그동안 지도치의제를 비롯한 각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해 온 TF팀이 계속 유지돼 양 단체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동현 섭외이사는 "그동안 양 단체 실무팀 회의를 통해 서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잦은 만남을 통해 관련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준관 치기협 회장도 "앞으로도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종 현안들에 대한 양 단체간의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치협 금연사업전문가 투입 '활기'

치주·예방치학 등 자문위원 10명 위촉

치협 금연사업에 치주, 예방치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돼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

치협 금연위원회가 3월 20일 벨라지오에 첫 번째 금연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치협 금연사업 방향 등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금연자문위원 위촉은 치협이 2008년 사업계획으로 금연사업의 패러다임을 '금연운동'에서 '금연진료'로 바꿔 금연진료의 보험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비를 해 나간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와 관련 치과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치과이식학회 등에 추천을 의뢰해 구성한 것.

금연위원으로는 김태일 서울치대 교수,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배광학 서울치대 교수, 김진범 부산치대 교수, 정종혁 경희치대 교수,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 계승범 삼성서울병원 과장, 유달준 원장, 우승철 원장 등 모두 10명이 위촉됐다.

한편 치과의사로서 금연운동협의회에서 오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차혜영 위원에 따르면 오는 5~6월 '한국금연학회'

가 설립될 예정이나 학회가 의사협회 산하단체로 들어가 치과의사들은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위원은 이에 "일단 치과의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이지만 의과의 경우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에서 흡연과 관련해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방대한 반면 치과의사 경우 이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없어 관련 연구가 절실한 상태"라면서 "학회에 참여하게 돼도 걱정이 앞선다. 자문위원들의 학문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금연위원회에서는 또한 2009년 3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는 제14회 세계금연대회에 한국치과계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제 및 구연, 포스터 등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순 문화복지이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흡연으로 인한 치과적 손실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금연진료를 보험화해야 하는 이유와 치과의사들이 금연진료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들을 뒷받침 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3년 총회 유치에 최선"

추진 현황·두바이 총회 결과 등 현안 논의

치협 국제위원회가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유치 추진현황과 두바이 총회 결과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국제위는 3월 5일 협회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김동기 부회장, 문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FDI 두바이 총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우리 치협을 비롯한 4개국의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탈퇴 이후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13년 총회 유치와 관련 유치여건, FDI 이사회 일정 및 결정과정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기 부회장은 "지난 3년간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며 "FDI 총회 서울 유치는 우

리 치협의 국제위상 제고와 경제적 이득 등 장점이 많다. 올해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것이 (유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준식 국제이사는 "우리 치협이 신청한 101차 FDI 총회 개최지에 대한 FDI 이사회 결정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경에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101차 총회 유치와 관련 각국의 신청이 최종 마감된 결과 FDI 본부 측에서는 해당 국가를 공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치협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호주와 홍콩 등이 현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지난 2005년 4월 가장 먼저 2013년 101차 FDI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